

“피해·가해 학생 갈등 조정 자치위 만들라”

이동범 전 교원단체연합회장의
학교 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처해야 하며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학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태권도장들과 ‘학생보호 사회 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협약으로 학교폭력에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다. 폭력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질서까지 파괴하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악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지난해 광주에서 690여 건에 가해학생 1천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며, 전국적으로는 13%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300여 개의 불량 서클이 잔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저질을 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의 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단위학교에서는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많은 시행착오와 위법적인 학생지도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자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와 분장조정을 한다든지, 주먹구구식 판단에 따라 “경미한 폭력인데” “서로 합의했는데” “아이들이 뭐 그렇지” 하면서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제부터 학교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처해야 하며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희망의 내 아이’ 숲과 함께 자연 체험

나뭇잎 만지고 곤충 관찰 ‘행복 충전’

지난달 28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에는 10여 명 남짓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걸으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모아 새 집을 짓기하고 솔방울을 이용해 놀고 달리기 시합도 했다. 또, 낙엽을 모아 놓고 무르익은 가을향기를 맡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나무계단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하며 티없이 맑은 흥성을 지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우리 보건지소가 재활사업 일환으로 마련한 ‘희망의 내 아이’ 자

연의 숲과 함께’라는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다.

광주 서구청이 지역사회 언어·지적장애 아동들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언어·지적장애아들의 경우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고 또래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 어른들의 시선에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만 접하다 보니 일반 아이들에 비해 운동량도 부족하다.

서구청은 이들의 정서함양과 운동능력 배양을 위해 자연을 벗 삼아 생



지난 달 28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에서 열린 ‘희망의 내 아이 자연의 숲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산책로를 걸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태체험을 할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펼쳐진 숲 체험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은 산책로 숲길 걷기, 나뭇잎 만지기, 곤충 관찰하기, 나무 앙기, 꽃 사

로운 체험을 몸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3시간 동안 펼쳐진 빛나는 일정을 힘들어하지 않고 엄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연의 숨결을 마음껏 느꼈다.

▲ 김희순·상무금호보건지소
방문보건 담당

진 담기, 나뭇잎 화관 만들기 등 다채

대인동삼일부동산

☎ (0)2-1140-5210 월 011-802-2522

(광주은행 신분점보, 대인동 소방서간판)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월 011-8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50평 건물 4,500평(매기 210평)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 690평 건물 750평(매기 98평)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월수 12억

▶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 (회사) 농, 복지,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업무용)-매기 평당 750만원

- 250평(유용기능)-매기 평당 1,200만원

- 500평(업무상용)-매기 평당 1,200만원

▶ 기타물도

- (농지) 등산로 약 2만2천평 평당 12만원

- (농지) 산간로 대체로 약 3,000평

- 평당 300만원(미트, 예산장 등 적립)

- (주택지) 등산로 대체로 1,300평

- 평당 350만원(미트, 예산장 등 적립)

- 주거지(주택) 2,000평 평당 450만원

- 현 거주지(주택) 150평(9층) 매매기 평당 450만원

- (학원, 복지, 학원, 기타부지 등 적립)

- 세정 이율별주변 역세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가능 전화상담 환경)

● 부동산 교환상담 환경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금산공인중개사

T. 081-5688 H. 011-801-5354

(금호동 서광주 역 건너, 2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 지

약 2850㎡, 가격 협의 결정

•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

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 광주 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한길부동산주

한길부동산주

상담전화 ☎ 011-647-4114

주유소 매 매

북구 종흥동 1.250㎡

매매가 12억(임대가)

대로변, 위치좋음, 공시지가이하

현 임대 수입 : 보증금 21,000만,

월 800만

· 전원주택 매매 ·

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

대지 1,270㎡ 매매가 4,500만

◎ 상담전화 ◎

☎ 011-647-4114

금호부동산컨설턴트

☎ 224-5959/010-2831-1733

광주 전남권 부동산 10-35% 할인

* 급매 부동산 중개 *

* 경매 부동산 중개 *

* 대출 부동산 중개 *

부동산 투자는 금호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전화 224-5959 / 010-2831-1733

클릭! 맛집



비비큐삼겹살과 오리

참나무향 배인 고기 쫄깃

구수한 닭육수 미역국 술꾼들 속풀이 그만

■ 광주 매곡동 ‘빛고을장작구이’

광주시 북구 매곡동 빅마트 옆 ‘빛고을장작구이’(업주 최호창)는 참나무의 은은한 향이 고기의 맛을 더해주는 집이다.

참나무 바비큐 방식으로 훈제시킨 오리와 돼지고기는 씹는 맛부터 다르다.

가마에서 선 불에 구워내는데, 고기 사이사이 배인은은한 참나무향과 함께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고기의 맛이 단연 일품이다.

참나무는 밤화시 물에 좋은 원적외선을 발생하고, 재가 거의 날리지 않기 때문에 직화구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 없다. 참나무는 강원도 산골에서 가져온다.

얼리지 않은 돼지고기
기식을 맛당 앞 바비큐 가
마에서 1시간20분가량
초벌구이를 한 뒤 손님
상에서 한 차례 다시 굽는다. 가마의 선 불에
너무 익히면 육즙과 기
름이 모두 빠져나가 고
기가 부식하기 때문에
2번 나눠 굽는다.

고기는 마늘, 레몬,
배, 사과 등을 같아 만

든 소스에 찍어 먹는데 달콤한 맛을 낸다.

오리는 물의 해독은 물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고마운 식품이지만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집 오리는 가마에서 40여분 동안 훈제돼 냄새가 전혀 없다.

밀반찬으로 주는 닭육수 미역국은 술을 부른다. 닭을 통째로 가마에 넣고 한 번 삶아 기름기를 빼낸 뒤 다시 3시간 동안 삶아 담백한 육수를 만든다.

이 육수에 완도 미역을 넣고 쭈 끓여 구수한 맛을 낸다. 속풀이에도 그만이다. 바비큐삼겹살 9천원, 오리 훈제 1마리 3만5천원, 반마리 1만8천원.

점심에는 영양가 만점, 오리주물럭(반마리 1만5천원)과 불고기전골(8천원)을 먹을 수 있다. 고기는 굽는 시간이 걸려 예약은 필수, 문의 062-576-336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찾는 길

북부서

삼성아파트

일곡지구

빅마트

경매전문회사